

## 『비운의 주드』의 크라이스트민스터: 정상성 수호를 위한 공동체

이 복 기  
(전북대학교)

Lee, Bokki. "Christminster in *Jude the Obscure*: A Community for Protecting Normalc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9.4 (2023): 129-146.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omas Hardy's *Jude the Obscure*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ghosts and phantoms in the novel reveal the instability of the current institutions and powers by erupting through the ruptures within them. In the novel, Jude, Sue, and Father Time are represented as ghosts and considered to be abnormal beings. As Ian Hacking has well analyzed the Victorian society obsessively classified the individuals according to their temperaments and tried to control them. In the novel, the characters considered to belong to the abnormal class are called ghosts, and the force to conjure them away from the normal community operates on them. To keep the current institutions and community stable and safe most individuals, from the scholars and landladies to the students, join to watch any abnormal activities performed by so-called ghosts. In the communities of *Jude the Obscure*, this mechanism of Victorian discipline and punish is clearly represented.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Jude the Obscure, hauntology, discipline and punish, ghost, Oxford Movement.

### I

토마스 하디(Thomas Hardy)의 『비운의 주드』(*Jude the Obscure*)는 건축가인 작가의 직업적 능력을 서사구조를 구축하는 데 많이 활용한 작품이다. 주드 포울리(Jude Fawley)와, 수 브라이드헤드(Sue Bridehead), 아라벨라 돈

(Arabella Donn), 리차드 필롯슨(Richard Phillotson)이 기하학적인 대립구조를 이루면서 결혼관계의 변화를 이어가는 구조가 서사의 기본 뼈대를 구성한다. 기하학적 대립 구조는 서사를 명료하게 하고 이 소설을 통해 주장하는 바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정작 이 작품은 모호성이 높고 출판 당시 당대의 독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명확하고 튼실한 뼈대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재료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선정성이 높고, 개연성은 낮은 사건과, 정확하지 않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인유 등을 끌어다가 채웠다는 이유를 들어 많은 당대 비평가들이 혹평을 가하였다. 서사 구조와 서사의 소재와 내용 사이의 대립은 패트리샤 잉햄(Patricia Ingham)의 요약처럼 대칭을 이루는 명료한 “디자인은 단지 격동하는 대립적 견해들의 표현 위에 그럴싸한 단정함을 얹어 놓은 구조물”(xii)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시각을 조금 바꿔서 보면 작품의 대립되는 구성은 작가가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는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 잉햄이 인용한 것처럼 하디는 “예절과, 관습, 종교, 비합법성, 전형적인 가정과 연관된 해로운 전통을 무너뜨리고”(xxi 재인용) 싶었던 작가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대의 비평가들과 근엄한 종교인들이 노골적으로 표현한 강한 거부감은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사회적 수용 가능성 범주를 벗어난 작품을 비정상적이라는 낙인을 찍고 비난하여 독자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싶은 바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비운의 주드』는 정상성과 비정상성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정상성이라는 담론에 근거하여 세워진 체제의 권력이 출몰하는 비정상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길들이는 과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주드가 크라이스트민스터의 대학에 입학하여 사제나 교수가 되는 꿈이 당시 독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소망으로 보인다. 교회와 사회가 인정하는 법적 절차를 통과하지 않은 남녀가 사랑이 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심지어 이전의 결혼을 제도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가정을 이루려 시도하는 것은 정상적 가정의 범주를 극심하게 벗어났다고 당대인들은 판단했다. 또한 여성 주인공 수는 신여성 중에서도 기이한 특성을 지닌 인물로 무성애자이거나 동성애자로 인식되어서 독자들의 이해 범주의 경계를 한참 벗어났다.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난 인물들이 시대착오적인 이상을 품고서 크라이스트민스터에 진입하여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크라이스트민스터를 이

끄는 힘은 이미 그런 이상과는 결별하고 현 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견고한 성체를 썩아 올린 상태다. 그들은 크라이스트민스터의 정상상의 범주에 길들여지거나 그곳에서 축기되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 논문은 빅토리아시대 영국이 정상성이라는 범주에 집착하여 정해진 정상성의 기준을 벗어나는 인물과 행위를 감시하고 축출하려는 오래된 공동체 운영의 변형된 형태를 지속한다는 점을 우선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상성의 영역에 속하는 인물들을 주류 현실세계와 분리된 유령으로 표현한다는 지점에 집중하여 서사를 분석하고 기존의 해석의 문제점을 수정하려고 시도한다. 서사의 흐름에 따라 때때로 주드가 유령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크라이스트민스터(Christminster)의 하층민들, 그리고 수 또한 유령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한다. 소설의 유령적인 특성에 대해서 필립 와인스틴(Philip M. Weinstein)은 주드와 수가 현실의 형태와 온전히 결합하지 못한 “달래지지 않고 명확한 패러다임을 찾아 떠도는”(130) 영혼으로 이해하고 작품을 해석한다. 패트릭 오말리(Patrick R. O'Malley)는 이 소설을 고딕소설로서 접근하면서 기존의 고딕소설과 세기말에 쓰인 이 소설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오말리는 유령의 실체로 성공회의 개신교적 특성을 정통 카톨릭의 제의성과 성상경배 성격으로 대체하려는 옥스퍼드 운동을 지목하여 작품을 분석한다. 그의 접근은 19세기 후반에 중세적 카톨릭 신앙의 부활이 소설 속에 스며든 장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유령의 실체를 카톨릭과 옥스퍼드 운동으로 한정하면서 서사 전체에 등장하는 다른 형태의 유령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분명히 내비친다. 이 논문은 유령의 의미를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이 사회적, 역사적 차원에서 접근하려 했던 방식을 이어받고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유령론’(Hauntology) 개념을 활용하여 정의하고 작품을 해석해 볼 것이다.

## II

이언 핵킹(Ian Hacking)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결정론이 영향력을 잃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어렵게 “사람들과 그들의 습속 목록”(1)이 사람

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종교적이고 결정론적 이해체계가 작동하였지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람을 이해하는 데 숫자와 통계가 주요한 도구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결정론의 침식은 자연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상성과 규준으로부터 이탈”(Hacking 1)이라는 범주가 도입된다. 핵킹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계몽시대의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 19 세기 말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고 선언한다(1). 결정론이 우연성과 개연성으로 전환하면서 숫자화 된 데이터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을 시도하는데 재미있는 변화는 “결정론이 약화되면서 더 많은 통제가 뒤따르게 되었다”(2)는 사실이다. 통제가 작동하는 방식은 통계를 통해 다수로 판명된 정상성의 범주에 포함되면 정상이라는 판별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병적”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것은 다시 정상적임에 영향을 미친다(2). 공동체가 정상성이라는 범주를 기준으로 삼아 정상성의 영역을 강력하게 수호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개인은 정상의 범주로부터 이탈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규제하고 통제하게 되는 구도이다.

통계를 통한 분류가 법과 유사한 규제로 작동하는 데에는 처음에는 분류가 “자살, 범죄, 부랑, 광기, 매춘, 병과 같은 이탈”(Hacking 3)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법의 형태를 띤 규제는 근본적으로 권력기관이 “목록화와 범주화로 이탈적인 소집단을 개선-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Hacking 3)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상성의 범주를 더 강화시키고 이탈자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강화로 나타난다. “이탈적인 소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정상적인 구성원들이 던지는 질문과 시선으로부터 규제를 받게 되고 그 질문과 시선을 스스로 자신에게 향하게 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분석한 감시와 처벌의 사회의 작동과 같다.

정상적인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이탈적 인물이나, 현상, 행동을 통제하는 의지와 방식은 『비운의 주드』를 출간했을 때 전문가 독자들이 보인 반응에서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 에드먼드 고스(Edmund Gosse)는 주드가 입학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에 보낸 편지에 대한 비블리올 대학(Biblioll College) 학장의

답장과 이후 주드의 몰락 과정에서 옥스퍼드의 잘못이 없다는 변론을 당대의 평론에서 전개한다.

하지만 그의 몰락에서 옥스퍼드가 차지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고, 하디가 소설의 말미에서 대학을 향해 던진 수사적 공격에 사과할 방법을 알기 어렵다. 작가는 주드가 조잡할 정도로 한심한 편지를 발송한 대학장들은 당장 그에게 장학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고 비천한 신분인 주드의 지위에 온전히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지만, 잘못은 옥스퍼드에 있지 않다.

But it is difficult to see what part Oxford has in his destruction, or how Mr. Hardy can excuse the rhetorical diatribes against the university which appear towards the close of the book. Does the novelist really think that it was the duty of the heads of houses to whom Jude wrote his crudely pathetic letters to offer him immediately a fellowship? We may admit to the full the pathos of Jude's position—nothing is more heart-rending than the obscurity of the half educated—but surely, the fault did not lie with Oxford. (278)

고스는 학장이 보낸 편지가 몰락의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그의 유약한 성격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드가 학장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최고의 학문적 열정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의 격려만으로도 그의 진로가 확고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잔인할 정도인 학장의 답장이 주드의 몰락의 원인은 아니더라도 주드의 진로를 틀어놓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고스는 옥스퍼드라는 기관이 열정적인 예비 학자를 몰락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비껴나도록 변론하고 대신에 주드와 수가 비정상적인 인물됨을 부각시킨다.

핵킹이 정상성 담론이 심리와 병리적 일탈과 대비를 통해 구축되었다고 말한 대로 고스는 주드와 수에게서 정신적, 병리적 퇴화를 부각시킨다. 그는 주드를 “유전적 타락이 이상주의적 전환을 일으킨 신경증적 주체로 신식 의사라면 과대망상증이라 불렀을”(279) 것이라고 진단한다. 또한 수에 대해서는 파더 타임(Father Time)이 “유아적 광기의 발작”으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종교적 조증”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279). 옥스퍼드 학장의 편지는 주드에게 미약한 영향만

미쳤다고 주장하며 옥스퍼드의 책임을 방어한 고스는 주드와, 수, 파더 타임 같은 등장인물에게는 정신병증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하면서 그들이 극단적인 비정상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품과 작가에 대한 그의 최종적인 평가는 조롱 섞인 어조로 마무리 된다. “그토록 지저분하고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업이니, 하디가 이것을 성취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278)라는 말로 작품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가 비정상성의 영역에 속하지만 문학적 전개만은 인정해줄만 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고스의 평에서 정상성의 영역을 벗어난 인물들과 사건, 그리고 기이한 작품의 출판이라는 문화현상으로부터 정상적성의 영역에 속한 제도와 전통, 도덕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디가 『비운의 주드』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평이라고 감사를 표현한 헤블락 엘리스(Havelock Ellis)의 비평도 고스의 신랄한 용어들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더버빌가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 이후로 하디의 작품을 읽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종교나, 예술, 사랑에게 느껴지는 “신성한 신비”(310)의 부재를 내세운다. 그녀는 “세속적인 것이 더 이상 문턱에서 경고해 쫓겨나지 않으면 그곳에는 신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하고 그것이 자신이 “하디 소설 읽기를 멈춘” 이유라고 설명한다(312). 하디가 세속적인 요소들을 거르지 않고 작품에 재현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신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녀의 시각에는 일단 19세기 주류 비평가들이 가졌던 예술이 종교를 대체하여 전통과 종교를 수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한 신비”라는 종교적인 개념을 예술이 발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술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절대성과 불변의 존재 표현임을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예측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외부 세계의 순간적 변동과 인간 마음의 예상치 못한 변동에 완전히 심취해 버린 작가”(312)라고 하디를 평가한다.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집착했던 예측가능성이 작동하는 정상성의 세계가 아니라 예측이 작동하지 않는 문턱 너머의 비정상성의 세계에 집착하는 작가로 평가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평가의 근거로 파더 타임의 살해사건을 제시한다.

거기까지는 우리는 서사의 힘과 진지함, 보편적 인간성이 가지는 관심에 대한 철저한 의존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장롱을 열면서부터 우리는 일상적 삶의 너른 별관에서 좁은 경찰서 마당이나 정신병자 수용소 같은 우리 대부분에게는 상대적으로 비현실적인 좁은 공간으로 던져진다. 그것은 이야기 상에 불필요한 충돌로 보인다. 포올리가 어떠한 신경적 에너지의 오작동이 있을지 몰라도, 하디가 기괴한 병리적 타락에 대한 연구, 또는 범죄성의 유전적 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 이번 세기에 유혈낭자는 오로지 야만적인 문명의 변경에 사는 위대한 심리학자만이 인간적으로 관심을 갖는 대상이다.

Up to that one admires the strength and sobriety of the narrative, its complete reliance on the interests that lie in common humanity.... But with the opening of that cupboard we are thrust out of the large field of common life into the small field of the police court or the lunatic asylum, among the things which for most of us are comparatively unreal. It seems an unnecessary clash in the story. Whatever failure of nervous energy may be present in the Fawley family, it is clear that Mr. Hardy was not proposing to himself a study of gross pathological degenerescence, a study of the hereditary evolution of criminality..... In this century bloodshed can only be made humanly interesting by a great psychologist, living on the barbarous outskirts of civilization. (314)

파더 타임 사건 이후 서사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관심사의 영역, 정상성의 영역을 벗어나서 “야만적 문명의 변경”에 사는 심리학자나 관심을 기울일 만하고 경찰서나 정신병자 수용소에나 목격할 만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는 주장이다. 우호적이라고 평가한 엘리스의 평가도 빅토리아 시대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구도에서 비정상성을 제거하고 정상성의 영역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고시가 사용한 용어들보다 완화된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상성의 규준에서 벗어난 인물들을 지칭할 때 병리적 용어를 사용하여 비정상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작품 안에서 수를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한다.

수와 필롯슨이 결혼한 뒤 같이 침실에 들지만 수가 주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고 동침을 거부하자 필롯슨은 “수, 나는 그런 기벽을 혐오하오. 당신의 감정은 질서와 규제가 없어요”(213)라고 말하며 수가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난 기이

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감정이 예측 가능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필롯슨은 “가정의 법은 성품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고 성품은 분류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인성이 아주 독특하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규칙에 고통 받아야한다”(213)는 말을 더한다. 가정의 법칙은 통계에 따라 다수를 편안하게 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고 분류에 기초하여 기이하고 독특한 기질의 소유자로 판명이 난 인물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핵킹의 분석이 빅토리아 시대 말에 가정의 규정에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 수가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난 기이한 성품을 소유한 인물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그녀는 유령과 동일시된다. 그녀는 “그대 영혼, 그대 육체를 벗어버린 피조물, 그대 사랑스럽고, 달콤하며, 감질나게 하는 유령”(236)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육체적 욕망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유령적이고 육체가 없는 피조물”(250)이라고 불린다.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인물에 대해 ‘유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흔한 수사적 방식이지만 이 소설에서는 이상에 사로잡힌 인물, 과거로부터 현 체제의 틈새를 만들어내는 인물이나 생각, 그리고 미래의 전령처럼 현재를 이격시키는 인물을 유령이라 칭하며 자주 언급하는 점이 색다르고 분석을 필요로 한다.

### III

현실 세계를 설명하면서 유령을 은유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흔한 수사적 방식이다. 『비운의 주드』에는 유독 유령과 대화하거나 등장인물을 유령으로 은유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한다. 유령은 단순한 과거가 되어버린 사자의 현시만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인물의 상태를 지칭하기도 하고 미래로부터 도래하는 새로운 변화를 지칭하기도 한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은 크라이스트민스터에서 주드가 석공으로서 건물들을 수리하는 작업에 대해 “크라이스트민스터의 죽은 유령 같은 과거가 산 자들의 노동으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내고서는 그들을 이전 자아의 껍질, 시체, 유령으로 만든다”(65)는 방식으로 유령을 언급하며 설명한다. 흘러간 시간의 유령이 살아 있는 현재의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생명



을 연장하고 현재를 사는 노동자들을 유령처럼 생기가 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말이다. 이글턴은 작품의 서사전개 과정에서 수가 결국은 “유령과 환상에 의해 노예가 되었다”(67)고 말하고 주드의 경우는 훨씬 이전부터 그러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유령이 현재의 인물들을 유령처럼 사로잡아 삶을 파괴한다는 관점을 유지하며 작품 분석을 지속한다. 이글턴의 유령 은유 이해는 현재를 사로잡는 과거의 힘이라는 일반적인 의미화의 범주에 속한다. 그의 일반적인 해석을 데리다가 ‘유령론’을 정의하면서 과거의 유령이 현재의 이격된 시간 속에 등장하여 영향을 미치고 매끄럽고 균질적인 흐름을 만들려는 힘에 균열을 일으킨다고 한 설명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이 소설의 사용된 유령의 은유를 해석하는 데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또한 유령이 과거에서 오기만 하지 않고 미래에서도 도래하여 현재의 틈 사이로 등장한다는 점을 적용하면 이 소설에서 유령은 현대성(modernity)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어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될 것이다.

유령론은 데리다가 존재론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으로 존재론이 고정된 본질적 존재에 천착하는 점과 대조시켜 존재의 균열과 변화라는 커다란 흐름을 부각시킨다. 톰 루이스(Tom Lewis)의 요약처럼 데리다는 유령을 통해 “실재의 본래적인 불안정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140). 루이스는 유령은 “물질적 존재에 일시적인 양태만 부여하고서는, 사회영역과 자연영역 양자 내에서 ‘이미-항상’ 실현되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을 존재의 기표로서 작용한다”(140)고 설명한다. 유령은 데리다가 초기부터 전개했던 자신의 존재론과 인식론의 논점을 윤리적인 차원으로 전회하면서 정치와 윤리를 포괄하기 위해 새롭게 제시한 은유적 개념이다. 그가 초기에 사용한 차연(differance), 대리보충(supplement), 흔적(trace) 등과 같은 개념이 윤리적 전회를 기점으로 레비나스의 영향을 받아 정치와 윤리와 같은 영역을 포괄하도록 수정되고, 동구 공산권 몰락 후 마르크스의 유산을 논하는 자리에서 유령이란 개념을 소개하여 이전의 모든 개념들을 담아내도록 활용한다. 콜린 데이비스(Colin Davis)가 “유령에 관심을 갖는 행위는 레비나스적 타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한에서 윤리적 명령이다. 우리의 지적 체계 내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의 타자성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의 세계로의 완전히 치유하지 못할 침투이다. 유령론은 적어도 이십년 동안 감

지되었던 해체의 윤리적 전회와 관련되었고, 그것의 새로운 국면을 표현한다”(373)고 한 요약이 데리다 사유의 흐름에서 유령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짚고 있다. 유령론은 타자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는 윤리적 전회를 통한 사유의 변화에 기억과 역사, 유산을 가미한 사고를 전개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활용하여 『무명의 주드』를 해석하면, 초점을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운명론, 사회적 조건에 두고 분석한 기존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이 소설이 갖는 긍정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비운의 주드』에 나타나는 유령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조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물, 두 번째는 장소,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다. 인물을 중심으로 한 유령 유형에는 주드, 수, 그리고 파더 타임(Father Time)이 포함된다. 장소를 분류 기준으로 한 분류를 유령이 지배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기준으로 크라이스트민스터가 대표하는 유령의 도시와 웨스턴(Shaston)과 메리그린(Marygreen) 같이 유령의 자취를 제거한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마지막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면, 과거의 유령과 미래의 유령으로 분류되어 고대 이교도의 유령, 중세의 유령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침입하는 유령의 형태이고 모더니티가 미래의 유령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서사는 세 유형에 속하는 유령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사건과 의미를 만들어간다. 예를 들면, 중세에 매료된 주드가 크라이스트민스터에서 유령들과 조우하지만, 자신이 그곳의 내부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유령의 처지가 되어 떠돌면서 다른 인물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서사의 큰 줄기가 전개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유령을 중심으로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가장 현저하게 부각되는 지점은 주드가 처음 크라이스트민스터에 진입하는 대목이다.

꿈에 그리던 크라이스트민스터에 도달한 주드는 그 곳이 유령들이 출몰하기에 적절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중세 건축터미” 크라이스트민스터 거리에서 자신이 유령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석에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73). 그는 옥스퍼드에서 가르치고 공부한 학자들을 떠올리며 그들과 교감하면서 감회를 느낀다. 주드와 대화한 유령들은 주드가 책을 읽으면서 접했던 학자들로서 영국국교회가 중세적 카톨릭의 전통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옥스퍼드 운동(Oxford Movement)를 주도

했던 인물들이 많다. 이는 중세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주드의 현상태가 기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주드가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혀 현재의 자아가 성장할 재료인 영양분을 빼앗기고 껍질만 남게 된다는 이글턴의 해석이 타당성을 얻게 된다. 크라이스트민스터는 주드 같은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며 자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가 만난 유령들은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불러내어 활용하는 대상이다. 메튜 아놀드(Matthew Arnold) 유령의 말을 빌려 표현한다면 그 곳은 “잃어버린 이상들의 집”이었다(75). “유령 자아(self-spectre)”(73) 주드는 과거의 유령들의 생명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활용하기 적절한 대상일 뿐이다. 주드 같이 “형언할 수 없는 매력으로 우리 모두의 진정한 목표인 이상과 완성을 향해 우리를 부르는 마법”(75)을 발산하는 크라이스트민스터에 이끌려 오는 이들이 현재제의 이격을 발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깨어서 감시하며 지배한다. 주드는 경찰이 자신이 관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찰당하고 있는 처지여서(“a policeman who had been observing Jude without the latter observing him” 75), 험릿의 아버지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산 자들을 관찰했던 구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과거의 유령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며 현실을 설명하고 도래할 미래를 전망해야 할 크라이스트민스터는 현재의 힘이 과거의 유령들을 물신화하여 지배력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고 변화의 힘을 경찰력을 동원해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소임이 드러난다.

머릿속에서 그러보던 크라이스트민스터를 현실 속에서 대면했을 때, 주드는 그곳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고 만다. 크라이스트민스터 거주민들은 주드를 “창문을 통과하여 친숙한 것들을 보는 것”(80)처럼 지나쳐갈 뿐이고, 그가 “그 자리에 없는”(80) 존재인 것처럼 취급한다. 크라이스트민스터에 거주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 취급을 받으며 “언젠가는 내부에 들어가리라”(80)고 기대하던 주드가 크라이스트민스터의 정상적인 주류사회에 소속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증한 사건은 대학장에게서 온 답장이다. 학장은 답장에서 주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주드가 “자신의 공간”(110)에 머물면서 자신의 직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편지 수신인을 “주드 폴리, 석공(Jude Fawley, Stone-cutter)”이라고 적어 주드의 정체를 변화가 가

능한 모호한 상태로 남겨 두지 않는다. 이 답장은 현재의 주류권력이 현상태에 이격을 낼 수도 있는 비정상적인 유령의 침입을 방어하는 방식을 노출시킨다. 변화 가능성이 높은 모호한 유령적 정체를 고정시키고, 소속된 공간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머물게 하는 전략이 현재의 주류권력이 구축해 놓은 흔들리지 않고 명확히 설명이 가능한 구도를 공고히 하는 축귀의 방식이다. 아직 노동자가 옥스퍼드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미래가 도래하지 않고, 호기심 많은 누구든 연구하고 발견하게 한다는 고대 대학의 이상이 사라져버린 크라이스트민스터는 주드의 공간이 아니고 그는 그곳에서 쫓겨나야 할 유령에 불과하다.

과거의 유령들을 쫓아내고 도래하는 미래에 눈감게 하는 크라이스트민스터의 권력은 그곳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현상은 소설의 도입부에서부터 나타난다. 독자들은 어린시절 주드가 성장한 매리그린(Marygreen)의 묘사에서 크라이스트민스터의 영향을 대면하게 된다. 매리그린의 변화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그곳에 있던 “홍예지붕에 나무탑을 걸치고 예스러운 추녀가 있던”(5) 원교회는 런던에서 내려온 “역사 기록 제거자”(a certain obliterator of historic records, 6))에 의해 독일식 고딕 건물로 탈바꿈했다고 표현한다. 갑작스러운 고딕 교회의 등장은 크라이스트민스터에서 유행한 중세주의가 시골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증거이다. 또한 무너진 원교회에 사용된 자재들은 돼지우리나 화단, 담장을 보강하는 재료로 활용되었다. 신성하게 여겨졌던 과거 유산을 현재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과감하게 활용하는 장면에서 이 지역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입장을 읽어낼 수 있다. 현재의 효용을 위해 과거의 흔적을 과감하게 제거해도 된다는 입장 말이다. 종교의 신비성을 멀리하고 실용성을 선택한 매리그린 공동체는 한 발 더 내디더 교회에 부속된, 태곳적부터 묘지였던 장소에서 무덤을 없애고 “구 페니짜리 주철 십자가들만 오년 보증 상태로”(6) 남겨두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 장면은 교구에 속한 이웃과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기념물로 기리고자 한 묘지의 제거를 아무런 회한도 없이 수용한 지역사람들의 태도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장치이다. 그들에게 과거의 유령, 유산은 기억하고 대화해야 할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공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되거나 억제되어야 할 거주장스러운 존재였다.

공리적인 관계성이 지배하는 매리그린의 특성은 주드가 까마귀를 쫓던 들관

묘사에도 강조가 된다. 화자는 이랑이 끈게 뺀 들판이 “최근 몇 달 이전의 모든 역사를 앗아간” 것처럼 “들판에 비열한 공리적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기술한다(8). 아직 주드가 이곳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유령과 대화하는 사람으로서 타자는 아니지만, 그는 공리적인 관계의 한계성 안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실천하려고 시도하는 존재다. 까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동료인 공감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그런 결과로 주드는 매리그린의 공리주의적 현실의 힘을 대면하고 폭력적인 대가를 받아야 했다. 어릴 적부터 주드는 타자로서 현실과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였던 것이다.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던 주드에게 도래할 근대성의 유령이 크라이스트민스터에 도착한 초기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근대성에 대한 생각은 고작 중세 고딕식 학교건물들을 수리하는 일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이라는 근대의 악”(79)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다. 그는 아직 고딕 건축과 중세주의가 “석탄 덩어리 안의 고사리 잎처럼 죽었다”(79)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그에게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수이다. 그러므로 수는 중세의 유령을 활용하여 현재를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힘의 부질없는 계락을 이해하고 근대성이라는 도래할 유령과 접신하고 주드의 미몽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녀가 미래의 유령과 접촉하는 방법은 중세 이전의 유령의 소리를 듣는 방식이다. 수는 기차역이 “현재의 도시 생활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대성당은 한물갔다”고 선언한다(128). 중세주의의 지배가 끝나고 도래할 근대성을 상징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한 선언이다. 그녀는 중세 이전의 헬레니즘 시대의 유산을 계승하여 중세주의가 지배하는 현재에 균열을 내고 미래의 도래를 꿈꾼다. 아폴로와 비너스 상을 구입하여 하숙집 방에 몰래 두는 행위가 그녀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행위를 카톨릭을 복원하려 한 옥스퍼드 운동의 영향으로 이해하여 성상숭배 성향으로 설명한 패트릭 오말리(Patrick R. O'Malley)의 해석은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양상으로 구성된 수의 내면세계 분석의 실패로 보인다. 오말리는 주드가 수를 처음 대면하는 장면에서 그의 눈에 띈 그녀의 작업장 물품들을 나열한 장면을 들어서 수를 성상숭배와 중세주의에 물든 인물로 주장하려 하지만, 그녀는 “중세주의보다 더 고대적”(135)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유령들과 접신하여 도래할 근대성의 유령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수도 크라이스트민스터에서 유령과 대화하던 주드가 경찰의 감시에 노출되었던 것처럼 비정상적 행위와 존재의 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상성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한다. 수의 방에 놓인 비너스와 아폴로 흉상을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바닥에 던지고 밟아버려 결국 수가 하숙집을 나가고 새로운 직업을 찾게 만든 하숙집 주인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서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자이다. 이격된 현재의 틈새로 등장하는 과거와 미래의 유령으로부터 매끈한 현상태를 지키는 방식은 주류권력에 동조하는 개인들이 모두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메리그린에서 교회 모지를 제거해버린 것처럼 중세주의는 헬레니즘 유령의 출몰을 막기 위해 감시와 추방이라는 폭력을 사용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비정상적인 인물의 출현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정상성을 수호하는 장면은 소설의 곳곳에서 등장한다. 수가 멜체스터의 사범학교에서 도망쳐 주드의 집에서 하루 밤을 묵고 새벽에 밖으로 나설 때, 누군가 불까봐 염려하는 대목에서 주드의 하숙집 “윗층 창으로 머리가 불쑥 튀어나왔다가 빠르게 들어가는”(148) 장면을 끼워 넣은 이유는 명백히 이 도시가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인물의 행위를 서로 감시하여 비정상적인 유령적 인물의 출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인들이 다수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주드와 수가 엘드브릭컴(Aldbrickham)에 살면서 예배당에 글씨 새기는 일을 같이 할 때, 파더 타임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일찍 돌아온 상태에서 예배당을 방문한 여인네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또한 비정상성의 출현을 경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의 말을 들은 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이런 세평들이 최선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만들고 실제로 부도덕하게 만들어 버린다고!”(291-2)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린다. 다수의 주류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기로 선택한 개인들을 비정상적으로 분류하고 일반적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려는 의지는 이 소설 전반에 흐르는 정서이다.

수는 크라이스트민스터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의 생리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녀는 크라이스트민스터의 학생, 학자들은 “물신숭배자이자 접신자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145). 크라이스트민스터의 진정한 주인은 주드와 같이 “돈이나, 기회,

친구가 없지만, 배우의 열정”(144)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물신숭배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그 지배구도가 변하지 않도록 힘이 작용하는 지역이 되었다고 수는 한탄한다. 수의 이러한 평가를 주드가 온전히 수용하지는 않지만, 그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수로부터 영향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주드는 어릴 적부터 축적했던 중세주의 이상에 의심을 던지며, 중세 이전의 고대를 통해 현재 세계의 틈들을 발견하고 도래할 미래의 전망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주드에게 새로운 안목을 가지도록 영향을 주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든 수와의 관계는 깊어질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주드와 수의 만남 이후로 서사의 중심은 결혼제도와 성의 문제로 옮겨간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와 현실적 대응은 불일치하고 불화의 원인이 된다. 유부남 주드는 전통적 결혼제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자연적 사랑의 결합을 내세워 수와 결혼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정신적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육체관계에는 무관심한 수는 결혼에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한다. 수는 고대의 유산 중 정신과 이성 중심적 성향을 받아들였지만, 고대문명의 다른 한 면인 디오니소스적 육체와 쾌락 추구는 거부하여 불안한 불균형 상태이다. 그녀의 선택적 유산상속으로 두 사람의 결합은 현재의 제도와 그 제도를 지키는 감시와 처벌의 힘을 이길 대항적 힘이 공고하지 못한 관계가 되고 만다. 수의 의식에 죄의식을 심으며 파고드는 중세주의를 업은 현실의 힘이 가장 원시적이며 미래적인 힘을 빌려 그들의 비정상적이 결합에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내린다. “팔십대의 얼굴을 한 소년”(300)인 파더 타임은 오말리의 표현처럼 “과거의 현재로의 분출을 가장 극명하게 재현”(663)하며 주드와 수의 비정상적 생활을 파괴한다.

주드가 “우리시대의 모든 아이들은 이 시대의 어른인 우리들의 아이”(264)라며 미래적 범가족주의적 환대 정신으로 파더 타임을 받아들일 때, 그는 분명 도래할 미래의 유령이다. 그리고 그는 나그네인 그와 수를 감시하고 배제하여 평탄한 현재를 영속시키려 했던 크라이스트민스터와 중세주의에 미래의 유령으로서 틈을 비집고 다시 등장한 것이다. 자기 아이만 받아들여서는 성향을 “계급감정, 애국심, 스스로 구원하라는 이념처럼, 근본적으로는 비열한 배타성”(class-feeling, save-your-own-soul-ism, and other virtues, a mean exclusiveness at

bottom 264)을 갖고 있는 태도라 주장하며 자신과 수가 경험한 현 체제의 배타성과는 다른 도래할 공동체의 침투를 예견한다. 하지만, 체제는 미래의 유령을 감시하고 처벌할 구조를 가동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원시적이며 궁극적인 미래의 힘으로 근미래의 유령을 처벌한다. “초자연적으로 늙은 소년”(preternaturally old boy 270) 파더 타임이 가족의 일원이 된 뒤로, 이웃들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그들의[주드 가족의] 영혼을 둘러싸기 시작”했다(271). 감시의 시선이 “이렇게도 외진 곳까지 침투하여”(292-3) 그들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주드가 말할 정도로 세심하게 작동한다. 가장 강력한 처벌은 미래의 끝의 시각을 가진 파더 타임을 통해 수행된다. 와인스틴이 설명하는 것처럼 파더타임은 “영속적인 종말적 정경 안에 살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이 최종적 고갈 상태로 보인다”(130). 원시적 제의와 종말적 폭력이 파더 타임을 통해 결합하여, 이격된 현재의 틈으로 출몰했던 유령을 심판하고, 두 유령에게 고정된 자리가 부여되고 명확한 정체가 노출된다. 매끄러운 현 체제는 자신을 떠도는 과거의 유령도 미래의 유령도 쫓아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이격된 현실에는 눈을 감아버린다. 이름 없이 모호한 상태로 떠돌지만 아라벨라의 아이를 조건 없이 환대하고 환영한 유령 같은 주드는 과거와 미래에서 온 유령들을 환대하고 대화하기보다 감시의 힘을 활용하여 축귀하는 데만 집중하는 현 체제에게는 너무 일찍 도래한 미래의 유령이었다.

#### IV

하디는 『비운의 주드』에서 주드와 수의 경험을 통해 성격과 가족의 역사에 비극적 요소를 가졌지만 이상에 추동되어 그곳에 도달하려 한 개인들의 비극적 고통이나 초월적인 힘에 의한 처벌을 극화하려 했다기보다는 정상성이라는 범주를 내세우며 그 개인을 거부하고 압살하는 현 체제의 불관용과 폐쇄성을 부각시킨다. 이 논문은 개인의 성격에 근거한 비극으로 분석하거나 개인의 내부나 외부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힘에 의한 지배라는 관점으로 분석하기와는 거리를 두고 빅토리아 시대를 지배하던 통계와 숫자로 분류된 정상성과 비정상성이라는 분류를



통해 개인을 판단하고 정상성의 영역을 수호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개인들을 감시하고 배제하던 담론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이글턴이 사용한 유령의 은유를 받아들여 과거의 지식과 체제가 현재의 젊은이의 꿈과 이상을 이용하여 과거의 힘을 지속시키고 그 젊은이를 꺾질만 남은 유령으로 만든다는 노동자에 대한 주류세력의 지배방식으로서 유령 개념을 분석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거기에 데리다의 ‘유령론’ 개념을 추가하여 매끄럽게 구현된 현 체제의 이격 부위를 뚫고 등장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힘으로서의 유령 존재를 주드와, 수, 파더 타임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로서 무명인 주드는 근대인으로 거듭나고 경화된 체제에 의해 고통을 당함으로써 체제의 모순성과 폭력성을 동시에 폭로하는 존재로 해석을 덧붙일 수 있게 되었다. 여정의 끝에 주드가 마침내 아라벨라와 함께 다시 크라이스트민스터로 돌아왔을 때, “대학 아치 길과 창들 주위의 유령들이 친절해 보였지”라고 당시를 떠올리지만 이제 “이곳에는 빌어먹을 경찰을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자도 죽은 자도 없구나!”(381)라고 외치며 그곳이 한 치도 변하지 않았고 유령들은 그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크라이스트민스터의 학자들은 햄릿이 아버지의 유령을 보고 호레이쇼에게 한 “당신은 학자니 그것에게 말해보라” 한 명령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보다는 유령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눈 감아버리고 있다. 『무명의 주드』는 유령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옥스퍼드와 영국의 현 체제를 위해 담론을 생산하는 학자들에게 햄릿의 명령을 상기시키며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

## Works Cited

- Davis, Colin. “Hauntology, Spectres and Phantoms.” *French Studies* 59,3 (2005): 373-9. Print.
- Eagleton, Terry. “The Limits of Art.” Ed. Harold Bloom. *Thomas Hardy’s Jude the Obscure*. New York: Chelsea House. 1987: 61-71. Print.
- Ellis, Havelock. “Havelock Ellis, ‘Concerning Jude the Obscure,’ Savoy Magazine October 1896, No. vi, 35-49. in Ed. R. G. Cox. *Thomas Hardy: The Criticla Heritage*. London: Routledge. 1979: 309-20. Print.

- Gosse, Edmund. "Edmund Gosse, Cosmopolis January 1896, I, 60-9." in Ed. R. G. Cox. *Thomas Hardy: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1979: 275-82. Print.
- Hacking, Ian. *The Taming of Chance*. Cambridge: Cambridge UP. 2008. Print.
- Hardy, Thomas. *Jude the Obscure*. Oxford: Oxford UP. 2008. Print.
- Ingham, Patricia. "Introduction." *Jude the Obscure*. Oxford: Oxford UP. 2008: xi-xxi. Print.
- Lewis, Tom. "The Politics of 'Hauntology' in Derrida's *Specters of Marx*." *Ghostly Demarcations: A Symposium on Jacques Derrida's Specters of Marx*. 2008: 134-167. Print.
- O'Malley, Patrick R. "Oxford's Ghosts: *Jude the Obscure* and the End of the Gothic." *MFS*. 46.3 (2000): 646-71. Print.
- Weinstein, Philip M. "'The Spirit Unappeased and Peregrine': *Jude the Obscure*." Ed. Harold Bloom. *Thomas Hardy's Jude the Obscure*. New York: Chelsea. 1987: 119-35. Print.

이복기 (전북대학교 / 교수)

주소: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lbokki@gmail.com

논문접수일: 2023. 09. 30. / 심사완료일: 2023. 11. 05. / 게재확정일: 2023. 11. 15.